

몽촌토성[夢村土城]

한성백제시대 또 하나의 왕성



1 개요

몽촌토성(사적 제297호)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고, 현재는 올림픽공원으로 정비·복원되어 있다. 북쪽으로 약 700m 거리에 풍납토성이, 서남쪽에는 방이동 고분군과 석촌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몽촌토성은 자연 구릉을 이용하여 축조한 성으로 한강변 인근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자리한다.

일제강점기에 이리토성(二里土城)이라고 불렸던 몽촌토성이 본격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웅진 천도 1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기백 선생이 석촌동 고분군에 대응하는 생활 근거지로 몽촌토성을 거론하면서 성읍국가 단계 백제국의 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후 몽촌토성 일대가 '88 서울 올림픽' 체육시설 부지로 확정되자 서울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1983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의 발굴조사가 트렌치 조사 위주였고, 일부 고지대를 중심으로 내부 시설물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족기와 직구단경호, 기대(器臺) 등의 백제 토기류는 물론 중국제 도자기와 금동제 과대금구(鍔帶金具, 허리띠 장식), 뼈로 만든 갑옷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 적심 건물지와 판축대지, 온돌 건물지와 연못지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유구들은 그간의 조사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서, 발굴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몽촌토성을 백제 초기의 왕성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화되다시피 하였다.

2 남한산 구릉에 쌓은 토성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뻗어 내려온 표고 44.8m의 구릉을 이용하여 구축한 토성으로, 지형이 다른 지점보다 낮거나 구릉이 이어지지 않은 지점을 연결하여 쌓았다. 토성은 남북 최장 730m, 동서 최장 570m의 마름모꼴 형태이며, 성벽의 길이는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서북벽 617m, 동북벽 650m, 서남벽 418m, 동남벽 600m로 2,285m에 달한다. 그리고 동북벽에 연이어 동북쪽으로 약 270m 뻗어나간 성벽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치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내부 면적은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약 216,000㎡(총 67,400평) 가량 된다. 성벽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으나, 절개 조사가 이루어진 서북벽과 동북벽 등 2개 지점을 살펴보면 기저부 너비 50~65m, 높이 12~17m, 상부 너비 7.5~10.5m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

성벽은 대체로 입자가 굵고 점성이 강한 점토를 이용하여 두께 5~10cm 단위로 얇게 펴서 다진 판축기법으로 축조하였다. 또한 동쪽의 외곽처럼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삭토하여 경사를 급하게 하였다. 성의 서쪽과 북쪽, 동북쪽 일대에서는 해자가 확인되었는데, 몽촌토성의 해자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성 주위를 감고 흐르고 있는 한강의 지천인 성내천의 물길을 이용하여 일부만 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북문지, 동문지, 남문지가 발견되었는데, 자세한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약 10m 내외의 너비에 부분적으로 할석을 깔 것이 확인되었으며, 기능상 출입구로서뿐만 아니라 배수구의 역할도 겸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마름모꼴 성벽의 각 변에 하나씩 3~5m 정도로 판축 성토하여 만든 망대지도 4기 확인되었다. 이들은 성벽 중에 자형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여 일부 성토한 토단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각각 사방을 조망하기 가장 좋은 고지대에 세워져 있다. 서북망대지는 몽촌토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해당되는 표고 44.8m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잠실과 풍납동 일대가 한눈에 조망된다. 이곳에서는 백제 시대의 중첩 건물지가 확인된 바 있다.

3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중요한 성과들

성벽과 관련된 구조물 외에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부 시설물로는 적심석을 갖춘 지상 건물지 1기, 판축성토대지 1개소, 연못지 2개소, 수혈주거지 12기, 저장공 31기 등이 있다.

1989년 서남지구에서 조사된 적심 건물지는 표고 35~40m 사이의 고지대에 집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축 성토대지 유구를 마주 보는 정면 4칸, 측면 2칸 이상의 동향으로 배치된 지상 건물지이다. 지상 건물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주한 집이거나 공공건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건물지는 몽촌토성에서 매우 비중 있는 건물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건물지의 아래에서도 장방형의 건물지 기단 일부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고, 이 밖에 적심 7기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판축 성토대지는 적심 건물지의 동쪽으로 약 25m 가량 떨어진 지점에 10×10m 규모로 생토를 약 80cm 정도 파내고 만들었다. 흙을 파낸 자리에 점성이 강한 점토를 30~40cm 가량 다져 쌓고, 다시 그 위에

점토와 마사토를 겹겹이 다져 판축한 것이다. 특히 적심 기초 건물지와 평행하게 마주 보도록 배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며, 지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군사적인 목적의 지휘소 같은 곳으로 추정된다.

연못지는 1989년 서남지구 발굴 때 두 곳이 확인되었다. 하나는 성안 고지대에서 조사되었고, 다른 하나는 남문지 부근의 저지대에서 조사되었다. 적심 건물지, 판축대지와 더불어 고지대에 위치한 연못은 인공 연못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남문지 부근의 저지대에서 확인된 연못은 성 안에서도 낮은 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유수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혈주거지는 모두 12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성벽 정상부나 경사면에서 조사되었는데, 구릉 경사면을 L자 형으로 파내고 벽체와 지붕을 구축한 것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화덕이나 온돌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 철모, 철준(창물미), 철도 등의 무기류가 다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군인들의 막사로 추정된다.

기타 저장공 31기가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장공은 곡물이나 기타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해 땅을 깊이 파서 만든 시설물이다.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저장공은 대부분 성벽 정상부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저장공 안에서는 다량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음식물을 토기에 담아서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장공은 대체로 입구 쪽보다 바닥으로 갈수록 더 널찍하게 판 플라스크 형태를 띠고 있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백제 한성기의 전형적인 토기인 고배, 삼족기, 직구단경호, 광구장경호, 심발, 장란형토기, 단경호, 단경웅, 시루, 뚜껑, 원통형기대, 병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소위 ‘몽촌유형’으로 대표되는 백제토기가 개념화되어 백제토기 연구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 밖에 중국 위진대(魏晉代)의 회유도기와 동진대(東晉代)의 청자 등 중국 도자기편도 출토되었다. 개중에는 백자 유약이 발린 정교한 도제 베틀편도 있다. 중국 자기편들은 대부분 서진~동진대 월주요 계통의 청자 및 흑유도기들이며 산지가 대부분 양자강 유역으로서 백제가 해로를 통해 중국의 강남지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투갑창, 창고달, 칼, 도끼, 화살촉 등 다양한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종류의 화살촉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4호 저장공에서는 골제 찰갑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찰갑의 길이는 10cm 내외이고, 너비는 2~4cm이다. 골제 찰갑은 철제 찰갑에 비해 훨씬 가벼워서 활동하기 편리하겠지만 약하고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갑옷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지휘관의 갑옷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이한 장신구로는 88-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금동제품 1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동진제로서 소형의 금동장식 여러 개가 달리는 허리띠장식의 하나로 밝혀졌다. 이 밖에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하여 암기와 및 수기와 편 등 기와류와 그물추, 가락바퀴 등도 소량 출토되었다. 철기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무기류 외에도 말편자, 말족쇄, 도끼, 철삽날, 가위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나무 오리 및 돌 절구 등도 발굴되었다.

한편 1989년 조사된 서남지구 고지대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온돌건물지가 발견되어 475년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점령하고 이후 백제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 밀려나는 551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곳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2013년부터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북문지 주변 발굴을

실시하여 백제가 만들고 고구려군이 개축한 한 변 14m 정도의 방형 목곽 집수시설을 발견하고 현재도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차례로 발굴되어 한 강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 양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제와 고구려는 엄청난 공력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풍납토성과 마찬가지로 성 내부를 동-서, 남-북으로 구획한 양상이 확인되었고, 특히 북문 밖으로 뻗어 풍납토성으로 향하는 대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주거지와 생활 유구가 집중된 구역에서는 ‘홈’ 또는 ‘官’으로 읽힐 수 있는 글자를 새긴 토기가 출토되어 몽촌토성의 성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4 한성의 남성(남성)이자 별궁이었던 몽촌토성

이상의 지형적 요건과 토성의 구조 등을 종합해 보면 몽촌토성은 평지에 위치한 풍납토성에 비해 방어력이 훨씬 뛰어난 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에서 발견된 유구와 유물의 특성을 보더라도 평상시의 활동을 위주로 한 거민성(居民城)이라기보다는 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성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몽촌토성이 비록 방어성의 기능이 강하다 할지라도 궁성(宮城)으로서의 역할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단순한 성격의 방어성과는 달리 한성백제시대의 도성을 구축하는 또 다른 궁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지대에 위치한 지상 건물지와 판축대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몽촌토성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금동제 과대 금구와 중국제 도자기 등의 유물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왕 내지는 고위 귀족들 외에는 점유할 수 없는 위신재적 성격이 강한 것들로서 풍납토성과 더불어 몽촌토성에도 왕이나 왕에 버금가는 신분의 사람이 거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몽촌토성의 축조 연대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 단서로 언급되어 왔던 전문도기는 중국 장강 유역의 옛 동오(東吳, 222~280) 및 동진(東晉, 317~420)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제작 사용되던 것이어서 몽촌토성의 축조 시기 비정뿐만 아니라 백제와 중국 남조의 교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금동제 과대장식 역시 최근 동진의 황제 묘로 추정되는 무덤에 부장된 것이 알려지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음을 알게 되어 몽촌토성의 위상을 짐작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475년 고구려에 의해 백제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죽임을 당할 당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그 무렵 백제 도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대강의 기사를 요약하면 “장수왕이 이끄는 3만 대군이 왕도(王都) 한성을 에워싸고 북성(北城)을 공격하여 7일 만에 빼앗고, 남성(南城)으로 옮겨서 공격하니 성 안은 위태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왕이 (성을) 나가 도망가자 고구려의 장수가 왕을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몽촌토성이 북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백제 한성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그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는 풍납토성은 평소 왕이 거주하던 거성으로서의 정궁으로, 몽촌토성은 비상시를 염두에 둔 방어성으로 정궁에 대한 별궁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과 관련하여 왕궁과는 별개의 별궁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사가 주목된다. 『삼국사기』 아신왕 즉위년조(392)의 “침류왕의 원자가 한성 별궁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기사

의 ‘한성 별궁’을 바로 몽촌토성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풍납토성이 종교, 정치, 경제, 대외 교류의 중심지로서 평상시 왕이 정사를 돌보는 것은 물론 귀족들과 상인, 외국 사신들이 드나들며 변화한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을 감안하면, 왕과 왕족들을 위한 별도의 독자적 생활 거처도 필요하였을 것이고, 몽촌토성은 이러한 목적의 별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